

민주당 대선주자 잇단 호남행… 지역발전 공약 변수

김경수 22일 양동시장 상인·당원과 만남
이재명 24·25일 광주·전남북 정책간담회
김동연 24일 호남 방문해 공약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잇따라 지역을 방문해 지지세 확장에 나선다. 호남이 민주당의 본산인 만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할 지역발전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당원과 간담회를 갖고 낮 12시30분께 광주의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방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전남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김수현 공보단장도 이날부터 이틀간 광주를 방문해 언론사 간부들과 면담을 한다.

이 후보는 2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북과 광주, 전남을 방문해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전북 김제시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찾아 ‘건강한 미래에너지’를 주제로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한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전일빌딩 245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이라는 주제로 당원과 만난다.

25일에는 전남 나주의 전남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미래 농업 전조기지 호남’을 주제로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한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수도권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오는 24일 호남을 찾을 전망이다.

호남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23일부터 26일까지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를 진행한다.



이재명(왼쪽사진부터), 김경수, 김동연계21대 대통령 선거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지역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방문에 지역소멸을 막고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호남에 집중돼 있고,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이후 격전지인 서울·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후보들의 지역발전 공약이 호남 경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순환경제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모델시티-더 브레인(The BRAIN)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 원 규모의 공약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전남도의 최우선 공약 과제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여수산단과 광양만권을 되살릴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 20건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채택됐으나 정부의 무관심 속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다.

광주시·전남도·전북도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민주당 중앙당에 공동으로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다 보니 매년 대선 때마다 민주당 후보에게 물표를 주지만 지역은 여전히 소외받고 낙후돼 있다”며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밀바닥 민심을 후보들이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김경수 계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한여물전상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시스

“광주·전남 메가시티, 3~5조 예산 직접 지원해야”

김경수 ‘민심 청취’ 양동시장 찾아 상인·지지자들과 인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광주를 찾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광주·전남에 얽힌 현안들은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풀리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내건 지역 공약 일부를 언급한 김 후보는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상안을 예시로 들면서 “중앙정부는 광주·전남 메가시티에 1년에 3~5조 규모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광주·전남 메가시티는 이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예산을 구걸하는 지방자치체를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치러지는 호남권 경선에 대해서는 후보 간 합심을 통한 정권 교체 포부를 밝혔다.

그는 “네거티브 없이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당선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시장 상인들을 향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부터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아내 김정은 여사와 양동시장을 찾은 김 후보는 시장 상인·지지자들을 만나 인사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성공하리”는 시장 상인의 대답에는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양동시장 일정을 마친 김 후보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전남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광수 기자

국힘 대선 경선 1차 경선 막판 총력전… 나경원 “빠꾸기” 안철수 “뭉라도 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22일 2차 경선 진출을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마감을 앞두고 총력전에 나섰다. 4위권으로 좁히는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신경전도 벌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청년 주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 캠프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했던 정장욱씨 등의 지지선언도 진행했다.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에서 “저희는 4강은 무조건 들어갈 거고 그 다음 경선에서도 계속 1등을 할 거다. 꼭 1등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준표 후보는 같은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

김문수 정책 행보… 캠프 “4강 무조건, 그 다음도 계속 1등”
홍준표, 한동훈 향해 “배신자 프레임 강하 어려워”
한동훈, 정책 행보… 메가폴리스·산불피해복구 주문
안철수 “빠꾸기라도 하겠다” 나경원 “우리 당에 뒤늦게 와”

보를 ‘배신자’로 규정했다. 한 후보가 자신을 법무부 장관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끌어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하지 말고 협력해 국정을 안정시켰다면 비상계엄은 없었다는 논리다.

홍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선 경선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키높이 구두’ 등을 물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쉬쉬하는 것을 봉인 해제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타 후보들의 메가시티 공약과 차별점에 대해 “그런 공약들은 광역시 차원의 협상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경남, 울산 등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으시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며 산불피해 복구 특별법의 빠른 제정,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심사와 통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대선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다른 후보들을 향해 “당이 숨을 헐떡이는 이 순간, 당을 살릴 고민은커녕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도 없이, 시체가 된 당을 난도질하며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건 아니냐. 보이는 것은 오직 정치적 계산, 오직 개인의 욕심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反)탄 범조인 출신 후보님들, 국민은 알고 있다. 여러분의 정치적 행보,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한 그 선택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분은 저를 ‘빠꾸기’라 부른다.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뭉라도 되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과 울산을 찾아 당심 공략에 나섰다. 안 후보를 향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 당적 변경을 거론하며 정채성 공세도 이어갔다.

/뉴스시스

김동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하고 전남의대 설립”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동서횡단 교통망 신설 등 약속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호남의 앞날을 변화시킬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광주·전남·전북 지역 맞춤형 공약을 공개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명칭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후보가 내세운 ‘호남권 공통 공약’에는 서해안 RE100 라인 집중투자, 광주·민·군 공항 이전·활성화를 위한 빅딜 추진, 광역교통망 확충, 동서횡단 교통망 신설,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적극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RE100 라인 투자 구상은 국민기후펀드 100조원, 기후채권 발행·공공금융기관 출자 100조원·기후보증 100조원·민자유치 100조원 등 40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전남 공약에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추진 등이 담겼다. 전북은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새만금 국제공항 차질없이 추진 등이 포함됐다.

/뉴스시스

주최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2025. 5. 10. - 5. 11. 장성 황룡강변

전야제 5. 9.(금)

뮤직 페스티벌 5. 10.(토)

나들이 5. 12.(월) - 5. 18.(일)